

적요한 눈밭 가득찬 '침묵의 설법' 들어보라



2 신홍사, 僧俗이 금강초롱 불 밝히다

신홍사 부도밭은 일주문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늘 관광객이 북적대는 매표소를 거쳐 바로 일주문으로 가면 부도밭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가면 찾기 어렵다는 역설이 부도밭이 어떤 곳인가를 말해 주는 듯합니다. 안내원들의 손짓 몸짓이 분주한 주차구역을 지나 또 다른 매표소가 있는 찾길을 따라 가다보면 험사리 부도밭을 만납니다. 찾기 어려운 곳은 아니지만 쉬 가지 않게 되는 곳이 부도밭이고 보면 어느 절이나 형편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온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나 무심히 지나치는 곳이 부도밭이고 신홍사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차를 굽은 길가에 바짝 붙여 세우고 눈을 들어 보니 아차 싶습다. 두툼한 솜이불을 덮고 있는 부도밭 풍경, 하늘은 새파랗고 아침 바람은 쨍쨍 거리며 목 줄기를 파고듭니다. 무릎까지 차오를 것 같은 눈밭에 들어갈 일이 아득합니다. 하지만 절망과 희망은 같이 옵니다. 가슴에 갑자기 불이 켜집니다. 마침 차 안에 장화 한 켤레가 있다는 사실이 천하를 얻은 기쁨일 줄이요.

장화를 신고 올라선 신홍사 부도밭. 그 하얀 눈밭엔 단 하나의 발자국도 없습니다. 눈이 내리지 보름 쯤 지났지만 아직 한 사람도 다녀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겨울 아침 바람처럼 차갑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신년 벽두에 찾은 이 적요한 공간에 내가 첫발 자국을 남긴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기도 하여 스스로 만족합니다.

부도밭은 차갑습니다. 헛발은 숲을 휘휘 돌아 부도밭을 거쳐 관광객들을 만나러 가는 산바람이 눈밭의 표면을 쓸고 있을 뿐, 어느 것 하나 정겹게 살아 있음에 자족하는 몸짓이 없습니다. 비림(碑林)을 지키고 있는 옛 스승들의 부도는 모두 19기입니다. 우리나라 부도의 전형이라 할 원당형의 부도는 3기가 있고 나머지는 석종인데 온전한 모양을 갖추지 못한 부도도 있고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는 모두 7기입니다. 12기의 부도는 주인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있지만, 그 주인의 생애를 함께 전하지는 못하고 있기 일췌입니다. 부도에는 주인의 이름만 새겨지고 생애와 사상, 권속들의 이름 등은 부도탑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신홍사 부도밭에 서 있는 비는 모두 6개입니다. 스님의 탑비 4기와 공적기비 1기, 그리고 신홍사 사적을 기록한 비석 1기가 전부입니다.

신라불교의 거목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신홍사지만, 구체적인 기록을 남긴 것은 조선 인조 때부터입니다.

천년 여 동안 흔적을 잃었던 신홍사가 오늘의 자리에 중건된 것은 1644년(인조 22년)의 일이지요. 기록이 전하는 이 해는 영서(靈瑞) 연옥(蓮玉) 혜원(惠元) 세 스님이 2년 전에 불에 타버린 신홍사의 중

건을 발원한 때입니다. 세 스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절의 중건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세 스님이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옹인즉, 소림암(小林庵)에서 왔다는 한 신인(神人)이 "선정사 옛터 아래쪽 10리 지점에 절을 지으면 수만 년이 가도 3재(三災)가 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일러 준 것입니다. 세 스님은 더욱 분발하여 불사를 추진했고 마침내 신인이 가르쳐 준 곳에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신홍사(神興寺)라 했으니, 신인이 길지를 정해 줬으니 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세 신(神)자를 써 신홍사(神興寺)라 표기 하는데, 1995년 신홍사가 설악권을 포함한 영동지역의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는 중심이 되리라는 서원을 담아 개명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홍사는 1644년 세 스님의 발원에서부터 그 역사적 실체를 더듬을 수 있습니다. 부도밭의 부도들과 비 역시 그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어서 이 한적한 부도밭 이야말로 신홍사 역사의 산 증인들이 서 있는 곳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일체는 무상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인연을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 하면 떠나는 곳이 우리들 삶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한 번 출현했던 이 무대에는 모든 출연자들의 흔적이 남습니다. 시간의 축을 따라 세월이 바뀌고 풍속이 변화하여 사람의 공간에는 형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 사람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이 차가운 부도밭에 서 있는 나는 저 앞산의 등산로와 케이블카를 즐기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



눈 덮힌 설악의 봉우리와 파란 겨울하늘을 배경으로 고요 속에 침잠해 있는 신홍사 부도밭 전경. 아래 사진은 대원당 부도와 비.

염불 잘 했던 용암 스님 목소리 들리는 듯

1644년 중창 이후 부도 19기 비 4기... 역사의 산 증거로 남아

조윤형 강세황 등 명필가들의 글씨 생생

습니다. 어제의 그들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지금 내 모습은 내일의 그들입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살다가 흔적을 남기는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다. 그저 유골을 수습해 넣을 작은 부도 하나에 족하여 탑비를 세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다. 또 이와는 달리 먼저 '적멸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버린 수행자의 자여로운 형상과 파사로운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장엄한 부도를 조성하고 웅장한 탑비를 세워 그의 제자를 만대에 전하고자 했으니 이 또한 의미 속에서 무의미를 전하는 법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번잡한 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에 옛 스승들의 활자했던 구도적 삶의 기록이 부도와 빗돌로 전해진다는 것은 그나마 고마운 일이라 하겠습다.

신홍사 부도밭으로 오르는 계단은 중앙 지점에 있

습다. 눈 무더기에 쪽쪽 발이 빠지는 계단 여남 칸을 올라서니 바로 앞에 묵직하게 서 있는 부도 하나가 "이놈 추운 날 무엇 하러 왔느냐"하며 호통을 치는 듯합니다. 지대석과 기단부 그리고 달항아리 같은 탑신부와 상륜부를 의젓하게 갖춘 대원당탑(大圓堂塔)입니다. 이 탑의 짝이 되는 대원당대선사비는 귀부가 없이 비좌에 꽃혀 있지만 비신과 이수를 갖추고 팔작지붕 같은 옥개석을 덮고 있습니다. 비신에 새겨진 글씨가 아주 웅골찬 것이 눈을 붙잡아 램니다. 조선 후기 초서와 예서의 대가로 이름을 날렸던 조윤형(曹允亨 1725~1799)의 솜씨라니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비석 가운데 귀부와 이수 그리고 빗돌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용암당대선사비입니다. 용암 대선사는 1783년 나주에서 태어나 사발염의를

하고 전국 명산대찰을 순례한 헌걸찬 수행자였다고 전합니다. 무엇보다 용암 대선사는 염불을 잘 했다고 합니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100일 기도하고 난 뒤에 득음을 했다고 하는데, 그의 제자들도 목청이 우렁우렁하여 설법을 잘했다고 전합니다.

용암 대선사는 하나의 '월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스님들이 법상에서 설법을 시작할 때나 중간 그리고 마침 때에 설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게송을 읊고 뒤에 길게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이 바로 용암 대선사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용암 대선사는 참으로 멋진 구도자였나 봅니다. 가슴을 활하게 띄워주는 경전 한 구절 혹은 신현을 떠돌다가 문득 눈을 번쩍 뜨게 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리의 원음을 길게 토해내고는 아미타불께 그 열락을 바치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신홍사 부도밭의 비석들은 1764년에서 1827년 사이, 조선의 후기에 세워진 것들인데 하나같이 명필들의 서법(書法)이 한껏 기량을 자랑하고 있어 눈여



겨 볼만합니다. 대원당의 비는 조윤형이 썼고 용암당 대선사의 비는 시 서화의 삼절(三絶)로 칭송받았던 강세황(姜世晃 1712~1791)이, 신홍사사적비는 문필가로 이름을 떨친 김상숙(金相奭, 1717~1792)이 썼습다. 당대 명필들의 서법이 가득한 신홍사 부도밭에는 품 넓은 절집 고승들과 마을의 학자 예인들이 승속을 가리지 않고 펼쳐놓은 이야기들이 내년 봄의 금강초롱에 불을 댕기고 있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법의 당간을 무너뜨린 동국대를 규탄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슬퍼할 일입니다. 평생 역경사업에 매진해 오신 우리시대의 역경보살, 경학(經學)의 대가 월운스님이 일생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해온 역경불사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일생을 바쳐 역경사업에 몰두해온 노스님을 경중간 예우와 따스한 환송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일연반구의 상의도 없이 매물차게 내쫓는 이런 무리한들이 활개를 치는 불교 집안 풍토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법(진리)을 추구하는 불교집안에서 통할 법이나 한 일인지 어안이 병병합니다. 아무나 감할 수도 없고 하려들지도 않는 역경원장이라는 고난의 지리에 앉아 오로지 역경불사에만 몰두해온 노스님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무례도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월운스님은 1962년 비구대처의 오랜 분쟁을 끝내고 새롭게 발족한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의 3대 사업의 하나인 역경사업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고(故) 윤허스님의 상좌로 윤허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1993년부터 만 15년간을 동국역경원 원장 직에 봉직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2001년에는 마침내 해인사 소장 고리대장경을 전부 번역 간행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뒤이어 개역 전산화불사를 시작해 이제 2년 남짓이면 대작불사가 전부 마무리 하게 되어 있어 지금도 노구를 돌보지 않으시고 역경불사에 여념이 없으신 종단의 큰 어른입니다.

저희 후원회원들은 스님의 이러한 역경불사 원력에 감복해 만 13년을 한결

같이 심심일만 동참해 왔고 생을 마치는 그 날까지 스님을 도와 역경불사에 동참하리라 기도 발원해 왔습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 같은 역경원장 해임 소식에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래도 되는 건가? 재가불자도 아니고 출가불자인 스님이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일 수 있다는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와 구실을 갖다 붙였지만 속 내용은 어이없게도 불선사 문중 출신의 현직 동국대이사스님 한 분이 반대편으로 돌아섰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영동하게 화살을 돌려 봉선사 조실인 월운스님을 역경원장직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사실상 세 기관을 통합해 운영할 재원도 부족하고 실효성도 떨어져 휴면상태로 남아있다는 불교학술원을 발족하는데 스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입니다.

팔순이 넘은 노령에 스님인들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은사스님의 유지를 내가 마무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며 의무적으로 역경불사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스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상좌스님들의 걱정을 더느라고 스님께서서는 창에 검은 커피를 설치해가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걸림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그 어렵고 힘든 직분을 감당해 오신 스님에게 찬사와 감사의 인사가 아

니라 담배술보다 못한 종단의 권력을 쥐기 위해 스님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해답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번 역경원장 해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준엄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종단의 위계와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책임자의 깊은 참회와 반성이 있어야 하겠기에 저희들은 아래와 같은 결의사항을 요구합니다.

- 이번 사태를 독단적으로 처리해 스님과 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킨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영담 스님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공개 참회하라.
-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뒤늦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스님과 일연반구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임 원장을 임명하는 무례를 범한 동국대 총장과 학사부총장은 행정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월운스님께 정중하게 참회하라.
- 월운스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역경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위한 역경원 활성화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

만약 위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저희 후원회원들은 향후 역경사업에 대한 모든 후원을 중지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 2553년 1월 15일

동국역경원 후원회 회원 일동 합장